



# 지역 소식

구원 사업을 서두르는 성도들

## 블로그로 믿음 나누기

개인 블로그를 통해 복음과 간증을 나누며 회원 선교 사업에 앞장서는 후기 성도들을 소개한다.

**수** 지 와드 김현리 자매는 아내이자 엄마인 동시에 활동적인 블로거이다. 김 자매는 오래전부터 개인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운영하며, 개인적으로 의미 있게 다가왔던 경전 구절이나 연차대회 말씀, 좋은 생각, 간증, 가족 신문 등을 비공개로 올리곤 했었다. 그러다 좋은 글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게시하기 시작했다.

“자신과 가족의 영역 안에서만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려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참된 진리를 찾고 영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겸손한 주님의 자녀들이 빛과 진리의 길로 인도되는 데 저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블로그(blog)라는 단어는 ‘웹로그(web log)’의 준말로써 별개의 항목 또는 ‘포스트’로 이루어진 온라인

일지와 비슷하다. 오늘날 친구나 가족, 고객 간의 인간관계와 업무의 많은 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인터넷 검색이 정보 습득의 중요한 도구가 됨에 따라 웹상의 교회 관련 콘텐츠가 교회에 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주님의 선지자들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선교사들이 페이스북, 이메일 등으로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마찬가지로 교회 회원들도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하여 구원 사업에 동참하도록 권유받는다. (엘 톰 페리 장로, 구원 사업: 전 세계 지도자 방송, 2013년 6월 23일)

지난 몇 해 동안, 김 자매를 포함하여 한국의 몇몇 회원들은 블로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간증을 나누어 왔다.

교회 회원들이 선교 사업을 위해 블로그를 활용하게 된 계기는 저마다 다르다. 블로그를 통해 활발하게 선교 사업을 하는 인천 스테이크 만수 와드 전찬대 형제는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나는 물론입니다’라는

아래: 김현리 자매 가족의 모습(<http://blog.naver.com/haleyis>)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다.

어느 날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그는 성전에 가 인도를 간구했다. 그리고 귀가하기 전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성전 북 센터에 들러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했다. 그런데 그 물건들을 모두 구매한 뒤에도 웬지 북 센터를 떠날 수 없어 서성이다가 '위대한 회원 선교사'라는 책을 발견하게 되었다.

전 형제는 집으로 가는 길에 그 책을 읽었고, 가슴이 점점 뛰기 시작했다. 그는 머리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저는 저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잊고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제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선교 사업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던 중에 그 책에 나오는 '인터넷을 통한 선교 사업'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전 형제는 예전부터 블로그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곧 '나는 물론입니다'라는 개인 블로그를 개설하였다. 그는 이 블로그에서 자신 또는 주위 회원들의 신앙과 생활을 소개하기 시작했고, 물론 메시지 동영상이나 선지자의 말씀들을 자주 게시하여, 방문자가 교회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전 형제처럼, 블로그를 통해 복음을 소개하고 간증을 나누는 데 초점을 맞추는 회원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회원들은 일반적인 블로그처럼 취미나 맛집, 좋은 글, 여행 정보 등을 공유하는 가운데 교회 모임이나 간증을 종종 게시하기도 한다.

이런 블로그의 예로, 동 스테이크 길음 와드 이지는 자매가 운영하는 블로그, "'도도한 블랙캣'의 쉼터 프로젝트"가 있다.(blog.naver.com/dodoblackcat)

이 블로그는 영화, 여행, 맛집 등 유용한 정보들을 꾸준히 공유하고 있으며, 하루 7,000~12,000명의 방문자 수를 기록하는 인기 블로그이다. 다양한 정보들을 올리면서도, 이 자매는 교회 소식이나 간증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인기 블로그인 만큼 그 파급 효과가 크고 교회 이야기를 통해 선교 사업 계기가 마련되기도 한다.

"한번은 후기 성도 농구 동호회 '힐라맨 워리어즈'에 대해 소개하자, 하루 3,000명 이상의 방문자에게 높은 관심을 받았어요. 실제로 동호회와 함께 농구를 하기 위해 교회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지요."

후기 성도들은 블로그 선교 사업을 통해 이웃을 축복할 뿐 아니라 자신의 신앙이 발전하는 축복을 얻기도 한다.

교회 홍보 위원회에서 봉사 선교사로 봉사하는 추윤희 자매는, 블로그를 운영하며 자신의 간증이 크게 자랐다고 말한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 힘을 얻듯이, 방문자가 누구건 간에 위로받고,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이 커요. 생활 속에서 쉽게 공감하고 적용할 수

있는 복음 원리들을, 모든 방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풀어서 쓰려 노력합니다.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되었어요. 감사함이 커지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는 저마다 선교 사업에 대한 소망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선교 사업을 하려고 노력할 때 많은 아쉬움과 부족함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선교 사업의 소망을 이루는 방법은 빠르게 변하는 세상처럼 다양해지고 있으며, 지금은 우리가 각자의 재능과 창의력을 발휘해야 할 때일지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간증을 주제로 삼는 블로그를 새로 만들거나, 일상적인 주제를 다루는 자신의 블로그에 복음을 소개하고 간증을 나누는 것 모두 이 세상에 복음을 외치는 고결한 행위이다. 중요한 것은 복음과 간증을 나누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며, 영감에 따라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선교 사업의 영이 계속해서 함께할 것이다. ■



위 사진: 블로그를 관리하는 전찬대 형제의 모습([http://im\\_a\\_mormon.blog.me](http://im_a_mormon.blog.me))

오른쪽: 블로그를 관리하는 추윤희 자매(<http://blog.naver.com/chyheeh>)

추천 블로그

## 지금 방문해보세요!

### 유효상 형제의 '셀프 브랜딩'

**앞**서 소개한 인기 블로거 이지은 자매의 남편 유효상 형제도 블로그를 통해 선교 사업을 하고 있다. 그의 블로그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는, 프레젠테이션 노하우, 영어 회화반, 후기 성도의 삶이다. 그는 발표와 면접 등에 대한 기법을 공유하는 한편, 길음 와드 영어 회화반을 소개하고, 후기 성도들의 삶에 대해 전한다.

“교회의 영어회화반을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에 수업 사진을 포함해서 시간표, 후기 등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에는 100명이 넘는 방문자들이 질문을 해와 이에 답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한 중학생이 블로그의 정보를 통해 가족과 함께 영어회화반에 참석했고, 영어회화반이 정말 좋았다고 댓글로 전해 왔습니다. 원래 5~6명에 불과하던 영어 회화반이 이제는 30명이 되었습니다.”

유효상 형제는 영어 회화반을 통해 구도자가 교회와 복음을 소개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 힘쓴다. 또한, 주위 후기 성도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블로그에 게시하며, 다양한 회원들의 평범한 삶과 진실한 간증을 소개한다.



유효상의 셀프 브랜딩: [http://blog.naver.com/free\\_abc](http://blog.naver.com/free_abc)

**선**교사들이 주님의 사업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세계 각지의 장년층, 성인, 청년 성인, 청소년, 어린이 여러분에게 자신의 지역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과 컴퓨터로 페이스북 친구가 되며, 온라인으로 복음 메시지를 나누고, 선교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이 새롭고 신 나는 사업에 동참하도록 권유하는 바입니다.

엘 톨 페리 장로, 구원 사업: 전 세계 지도자 방송, 2013년 6월 23일, [hasteningthework.lds.org](http://hasteningthework.lds.org)

### 광주 스테이크, '그대를 품는 집, 동지'

**그**대를 품는 집, 동지'는 광주 스테이크 홍보 위원들이 모여 함께 운영하는 블로그이다.

그들은 교회 모임과 회원들의 소식, 활동 모임 사진, 간증 등을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다. 동시에, 게시판을 나누어 좋은 글, 칼럼, 자녀 교육에 관한 정보 등 흥미로운 여러 주제도 다루고 있다.

청녀인 박현정 자매는 광주 스테이크 홍보 위원으로서 김광윤 형제, 박원진 자매 등과 블로그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박 자매는 그녀의 소망을 이렇게 말한다.

“이 블로그 방문자들이 교회의 좋은 모임이나 프로그램을 보고, 교회를 긍정적으로 느끼길 바랍니다. 선교 사업에 큰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광주 스테이크 동지 블로그: <http://blog.naver.com/gjstake>

## 우리는 가족 선교사



**올** 산에는 아들 4명 중 3명이 동시에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 회원으로서 열심히 선교 사업에 앞장서고 있는 이들은 호계 지부 문두영 형제·김경애 자매의 가족이다.

초등학생인 막내 문호준 형제를 빼고는 첫째 문호빈, 둘째 문호빈, 셋째 문호직 장로가 각각 서울, 서울 남,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다.

아들이들이 선교사로 봉사하기 이전에도 회원 선교 사업에 열심히었지만, 지금 문 가족의 선교 사업 열정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뜨겁다. 아이들이 선교 사업을 나가도록 어떻게 도왔는지 이들 부부에게 묻자, 그들은 “우리는 한 것이 없어요.”라며 손을 내저었다.

“우리 부부가 귀환 선교사이다 보니 선교 사업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아이들은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연령이 되자

스스로 선교사 추천서를 작성했어요.”

문 형제는 덤덤하게 대답했지만, 그들이 가족을 이루고 함께 성장해 온 지난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 형제와 김 자매 부부가 아이들을 복음 안에서 키우려고 노력해 왔다는 것과 자녀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려 노력해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부부 모두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결혼 후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또한, 그들은 자녀들을 사랑과 복음 안에서 양육하고, 크고 작은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다.

어머니인 김경애 자매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을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 매 순간 기회를 찾는다. 지부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을 초대하여 이웃들과 만날 기회를 주고, 교회의 좋은 점들을 친구와 직장 동료들에게 항상 기쁘게 이야기하며 교회에 올 것을 권유한다.

한편, 선교사 아들들, 문 장로들은 선교 사업을 통해 느끼고 있는 기쁨과 감사함을 이메일로 전한다. 만나고 있는 구도자들을 서로 소개하고 그들을 위해 가족이 함께 기도한다. 구도자의 발전을 보며 함께 기뻐한다. 회원 선교 사업을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는지 토론하고 서로 조언한다.

문두영 형제가 선교 사업 중인 아들들에게 보낸 열정적인 간증에서, 선교 사업과 봉사에 대한 그의 태도를 느낄 수 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고속도로를, 아파트를, 발전소를, 항구를 만들어 놓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이나? 땅속에 석탄과 석유를, 또 시멘트 재료를 감추어 놓으신 이유는 무엇이나? 그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스스로 만들어 나가길 원하시기 때문이었다.”

주님께서 엘에이(LA)에, 인천에, 성전에 나타나셔서 천둥 같은 목소리로 5분 동안 당신을 증거하신다면 모든 사람이 회복된 복음을 믿을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선교 사업을 통해 감추어진 보화를 찾을 수 있도록 너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란다.”

문두영 형제 가족이 행하는 선교 사업의 원동력은, 사랑하는 가정 안에서 서로 간증을 나누고 복음의 원리를 실천하며,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일 것이다. 문 형제 가족의 모습은 다른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 선교 사업의 소망을 불러일으킨다. ■

##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볍도록

“**한** 참 전에 [침례를] 주었어야 했는데……” 딸에게 침례를 주고 침례탕에서 나오던 채제기 형제는 딸을 꼭 안아준 뒤 미안한 듯이 말했다.

지난 1월, 홍성 지방부 서산 지부에서 침례식이 있었다. 가족이 저활동되는 바람에 침례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도 침례를 받지 못한 채다인 자매가 그의 아버지 채 형제로부터 침례를 받은 것이다.

채제기 형제와 아내 김은정 자매, 자녀인 채다움 형제, 채다인 자매 가족은 서울 목동 와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충남 당진으로 이사를 왔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회에 드문드문 참석하다, 결국 교회 참석을 중단하고 말았다.

같은 지역에 사는 윤종순 형제와 그의 아내 황은미 자매는 이 가족을 매달 꾸준히 방문하면서 관심을 표현했다. *리아호나*를 전해 준다는 핑계로 매달 안부를 전했고, 시간이 어긋나더라도 다녀갔다는 메시지를 남겨 두었다.

윤 형제 부부는 선교사들의 방문이 지속될 수 있도록, 새로운 선교사들이 이동 올 때마다 함께 채 가족을 방문했다. 황 자매는 지부 대회나 크리스마스 파티처럼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김 자매에게 짤막한 초대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어느 날은 채 형제가 그들의 방문에 부담을 느끼고는, “저희가 언젠가는 스스로 돌아갈 것이니, 그만 오셔도 됩니다.”라고 말하며 방문을 거절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윤 형제 부부는 포기할 수 없었다. 황 자매는 그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신앙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스스로 돌아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교회로 돌아오는 게 여간 어렵고 어색한 일이 아닐 거예요. 기존의 회원들이 계속 모임에 초대해 주고, 선교사들도 방문해 주어야 교회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훨씬 가벼울 것이라 생각해서 계속 방문했어요.”

그렇게 윤 형제 부부는 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채 형제 가족을 방문했다.

특히 선교사들은 채 형제 가족의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한 회원과 선교사가 이 가정을 방문했던 어느 날 이후, 큰아들인 채다움 형제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등에 대한 영적인 호기심이 커졌다. 그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모르지만, 선교사들의 간증과 권유에 따라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그의 변화는 채 형제 가족이 교회에 다시 활동적으로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날 침례식에는 채 형제와 목동 와드를 함께 다녔던 친구들도 함께했다. 서울과 대전에서 서산 지부를 찾아온 것이다.

침례식과 성신의 은사 모두 채제기 형제가 집행했다. 가장인 채 형제가 사랑하는 딸에게 주는 간절한 신권 축복을 듣던 모두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내인 김 자매는 안수가 집행되고 폐회 찬송을 부르는 내내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그곳에 있던 모든 형제 자매는 복음과 신권이 한 가정에 주는 커다란 축복의 힘을 느껴보는 특권을 누렸다. 대가를 바라지 않은 꾸준한 방문과 관심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구원 사업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실감했고, 그 아름다운 결실을 목격할 수 있었다. ■

기사제공: 서산 지부 정재진 형제





## 집합 정신 (Conference Spirit)

한국 교회 역사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이 기사는

교회와 한민족과의 관계를 김호직 박사의 침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탐구하고 있습니다.



**후** 기 성도들이 “둘만 모여도 선한 힘을 발산한다(1951년 5월 16일 자 처치뉴스)”는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전쟁의 불길 속에 뛰어난 와중에서도 주한 미군 병사들이 매 순간 지키려 했던 삶의 태도는 현재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특히 그들은 어디에 있던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후기 성도 군인들을 찾아내고, 찾아내면 주일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려고 노력했다. 모이면 인사와 함께, 경전 말씀을 공부하고, 찬송과 간증을 나누며, 성찬을 취하였다. 1951년 한 해 동안의 처치 뉴스만 봐도, 김호직 박사 귀국 전후 한반도 도처에 뿌리내린 야전 교회의 활기찬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다. 그 관련 기사를 요즘 기자들 입을 빌려 전하자면 이렇다.

### 8월 8일 자

맥스 디 백스터 상병은 일주일에 6일은 군사 우편 업무의 달인…… 하지만 일요일이면…… 물론 (복음) 교리반 교사가 된다……. 5개월 전 함께 모여 예배를 보자고 한 사람은 세 명인데, 지금은 …… 보통 열 네명은 모인다…… 교리에 해박한 백스터 상병이 이들 중에 군목(chaplain)으로 선출되어 그룹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가 틈이 날 때마다 하는 일은 다음 주 예배할 장소를 찾고, 전할 말씀을 직접 준비하는 일이었다……. 많은 유타 …… 전우들이 말한다. “최고예요!” (“Mormon MP Forms Classes in Korea”, *Deseret News*, Church Section p. 11, Aug. 8, 1951)

### 9월 26일 자

어랏! (강원도) 양구만 해도 후기 성도 그룹이 세 개나 되네! 제116 전투공병대대와 아이다호 주 방위군에 하나(그룹지도자는 딘 에스 스펜서, 라퐁 지 매서비와 얼 디 스펜서가 보조), 와이오밍 주 방위군과 제300 야전포병대대에 하나(마일즈 비 하스톤이 그룹지도자, 맥스 씨 찬들러와 데이비드 지 벨슨 3세가 보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7해병연대의 그룹 하나!…… 그런데 여기는 아직 그룹 지도자가 없네…… 하지만 물문의 전례에 따르면 모두가 다

지도자가 아닌가! 워렌 바이비, 아디스 에그먼, 딘 존슨, 노먼 홉킨스…… 이 넷이 연대 내의 성도를 책임지는 사나이들! …… 모르고 지내던 이들이 서로의 존재를 알자마자 내민 것은 ‘Conference at the Front (전방에서 대회 한 번 하죠)’! …… 일요일 오후 2시, 10마일 전방에 적진을 둔 채 64명의 전우가 모였네. …… 전쟁의 참담함을 넘어서서 마음 낮은 이들이 전하는 영감 어린 말씀들, 이 복음이 참되다는 강한 간증들 …… 역경 속에서도 지키는 십일조, 지혜의 말씀 등 …… (복음)원리에 끊임없이 순종할 때 축복이 온다는 말씀 등 …… 이 모든 순간이 그들을 더 나은 기독교인, 더 나은 후기 성도가 되게 해 주었네.” (“LDS Servicemen in Korea Hold Services”, *Deseret News*, church Section p. 10, Sept. 26, 1951)

### 10월 24일 자

후기 성도 군목인 티모시 에이치 아이언즈 대위, 참화 속 한반도에서 후기 성도 군인을 위한 “한국 대회”를 열다……. 본 대회는 미제 7사단 의무대대 소속인 아이언즈 대위가 인근 부대에서 복무하는 후기 성도들을 땀 흘려 찾은 결과 이루어 낸 첫 작품인데, 처음 50명이 올 것으로 예상하여 준비한 천막은 도처에서 온 군인들로 넘쳐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 일요일 오후 제17보병여단 연대본부 건물에서 열린 이 대회에는 미국 10개 주와 사모아에서 나온 총 76명의 군인이 참여했다. 준비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하나같이 대회를 기리며, 함께 예배드리고 성찬을 취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군인들은 감사를 표하였다. 이후 진행된 간증 모임에서 그들은 복음의 참됨과 선행에 대해 개인적으로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회를 시작할 때 아이언즈 대위는 그들에게 종교를 실천하고, 부대 내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과 동시에, 매사에 교회 지도자의 권고를 상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음은 그의 말이다. ‘깨끗한 삶과 모범적인 행동은 주님의 사업을 진척할 좋은 기회를 가져옵니다.’ …… 그는 한국 내 다른 지역으로도 이러한 대회를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LDS Servicemen Hold Conference in Korea”, *Deseret News*, church Section p. 10, Oct. 24, 1951) ■

## 새로운 한국 교회 홈페이지 오픈

한국 교회 홈페이지(lds.or.kr)가 새로 개설되었다. 홈페이지에서 주로 이용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새로운 홈페이지를 살펴보자.



**(1) 간단한 설명:** 이 웹사이트는 기존의 웹사이트를 대신하며, 주소는 기존 웹사이트 그대로 lds.or.kr을 사용한다. 교회 본부가 정한 새로운 표준과 디자인에 따르며, 크롬(Chrome)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모바일용으로도 제공되어 스마트폰으로 이용하기 수월하다.

**(2) 교회 잡지, 교재, 기타 자료 다운 받기:** 우측 메뉴 중 '복음 자료실'을 클릭하면, 경전을 읽을 수 있고, 교회 잡지, 교재를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다. 영상, 오디오, 이미지 등을 다운로드 할 수도 있다.

**(3) 교회 조직 전화번호 찾기:** 상단 메뉴 중 '교회 조직'을 클릭하면, 서울 성전, 선교부, 취업 자원 센터 등의 안내와 연락처를 볼 수 있다.

**(4) 교회의 다른 사이트 바로 가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우측 하단을 보면 '관련 링크' 목록이 있다. 이곳에 나열된 교회 공식 사이트 중 원하는 항목을 클릭하면 바로 연결된다. 상단의 '교회 사이트' 메뉴에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5) 교회 소식 보기:** 상단 메뉴 중 '홈'을 클릭하면 교회 소식을 볼 수 있으며, 우측 메뉴에서 '행사 및 광고'를

클릭하여 행사 정보만 얻을 수도 있다.

**(6) 웹사이트에 모임 광고, 기사 실기:** 회원들은 광고를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단, 스테이크나 지방부가 주최하고, 여러 개의 스테이크 및 지방부, 또는 전국 회원 및 구도자를 대상으로 하며, 교회와 관련이 있는 행사들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선교 경험의 순간, 성공적인 구조 이야기, 그 외 영적으로 고양된 경험을 포함하는 자신의 이야기를 제출함으로써 기사 작성에 참여할 수도 있다.

광고와 기사를 게시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우측 하단의 행사제보 메뉴에 안내되어 있는 대로, CCP(Country Communication Page) 위원회의 메일 주소인 CCP\_Korea@ldschurch.org로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7) 검색하기:** 새로운 홈페이지에서는 검색 서비스가 제공된다. 검색 창에 원하는 단어를 입력하면 관련 게시글이나 자료가 바로 검색되므로 간단하고 편리하게 원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 ■

##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 발전:

# 정신 질환에 대한 고정 관념의 극복

**리** 아호나 2014년 1월호에서 우리는 각자의 현재 상황에서 주님의 성스러운 복지 사업을 위해 봉사하자는 현대 선지자들의 권유에 호응할 것을 당부했다. 이것은 자립을 촉진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보살피며, 이웃에게 봉사하면서 복음에 따라 생활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들에 대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자는 권유였다. 핵심을 들여다보면, 복음 중심의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즉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매일 실천하는 것으로 이것이 곧 실질 성장의 근간이다. 이런 근간은 구원 사업을 서두르는 일의 요체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려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의 외적인 행동과 내적인 생각, 감정, 성품 등 우리의 모든 면에 관여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따뜻한 사랑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한다면 우리 가정과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떤 느낌을 줄 것인가?

향후 여러 달에 걸쳐 *리아호나*에서는 그리스도 중심의 문화와 공동체 발전에 저해되는 일반적인 제약 요소들과, 그런 문화와 공동체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사항들을 다룰 예정이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의 고정 관념이 우리 와드와 지부를 비롯하여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서 우리 문화에, 특히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룰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우리 또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신 질환을 경험할 때 서로 보살피면서 그런 고정 관념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문화를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후기 성도 가족 서비스와의 공동 협력과 현지에서 벌이는 노력도 소개할 예정이다.

### 우리 문화와 고정 관념을 진단함

우리의 믿음, 기대치, 가치관, 통상적인 행동이 모여 우리 문화의 기초가 된다. 이 중에는 “감춰져 있거나” 또는 사람들이 이미 “정당하다고 가정해 버린”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문화를 진단하기란 쉽지 않다. 문화는 우리 자신과 타인, 하나님과 세상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렌즈와 같다. 그런 렌즈 중 하나는 고정 관념으로, 한 사람이나 공동체가 일단의 사람들의 속성과 행위에 대해 갖고 있는 믿음의 집합체이다. 고정 관념에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다. 고정 관념에는 성별, 연령, 민족, 국적, 사회적 상태, 결혼 상태, 정신 질환을 비롯하여 장애와 관련된 것도 포함된다. 후기

성도 공동체에서만 볼 수 있는 고정 관념도 있는데, 여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 활동 정도, 교회 부름, 자립 정도, 선교사 봉사 등이 속한다.

### 정신 질환에 대한 고정 관념

안타깝게도 정신 질환에 대한 고정 관념이 교회 안팎에 존재한다.<sup>1,2</sup> 칠십인인 알렉산더 비 모리스는 장로는 이런 고정 관념 몇 가지를 지적했는데, 예를 들어 “모든 정신 질환은 죄 때문에 생긴다”, “정신 질환과 관련하여 누군가가 비난을 받아야 한다”, “정신 질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신권 축복이다”, “정신 질환자는 단지 의지력이 부족할 뿐이다” 같은 생각들이다. (이번 호에 첨부된 기사 참조) 많은 고정 관념이 그렇듯이 이런 것들은 무지, 그리고 대중 매체 등에 나타난 잘못된 정보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고정 관념은 해로운 것으로 올바른 이해와 따뜻한 마음, 사랑의 손길로 이겨 내야 한다.

### 고정 관념의 극복

우리의 고정 관념을 극복하고 그리스도 같은 사랑에 바탕을 둔 문화를 육성하려면, 먼저 우리의 현재 문화와 고정 관념,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진단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우리의 실질 성장을 가로막는 믿음과 행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력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에 중심을 둔 가치관과 문화를 다 함께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

### 우리의 고정 관념을 인식한다.

다음 연습 문제를 해 보면 우리의 고정 관념을 더 잘 인식할 수 있다.

잠시 시간을 내서 한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떠오르는 생각과 표현을 자유롭게 솔직하게 적어 본다. 여기 몇 가지 예가 있다.

- 1) 우울증 또는 다른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_\_\_\_\_ 이다/하다.
- 2)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 기분은 \_\_\_\_\_.

이 대신에 이 연습 문제를 할 때 어떤 그룹을 대표하는 특정인을 생각할 수도 있다. “좋은 답” 또는 “모범적인 답”을 내고 싶은 충동을 조심하고, 진리의 영이 여러분을 도와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게

한다.(교리와 성약 93:24~26) 이런 생각과 느낌에 여러분의 고정 관념이 잘 나타날 수 있다.

### 고정 관념을 극복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자신의 고정 관념을 더 잘 알게 된 후에는 그것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삼가기 위해 무척

노력해야 한다. 어떤 자매는 이혼한 자신과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녀들에 대해 주변의 교회 회원들이 보인 비판적인 태도와 말 때문에 죄책감과 소외감을 자주 느꼈던 경험에 대해 서글퍼하며 말했다. 또 다른 자매는 정신 질환으로 고생할 때 주변 교회 회원들에게서 소외되고 무시당했던



것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모두에게 “내게로 와서, 만지며 보[라]”(제3니파이 18:25)고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행하라고 권유하신 구주의 교회에서 그런 비판적인 태도와 소외감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발달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어떤 어머니는 자기 지부에서 전혀 색다른

경험을 했다. 그녀의 아들은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 흔히 ADHD로 알려진 질환 때문에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질 못했다. 지부 회원들은 그 아이를 나무라는 대신에 진정으로 감싸주었다. 어떤 친절한 성인 회원은 그 아이 옆에 앉아서 퀴즈를 내서 성찬식 동안에 아이가 산만한 행동을 하지 않게 했다. 교사들도 아이가 집중하도록 공과를 준비했으며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여전히 힘들 때도 아이를 나무라는 사람은 없었다. 회원들이 보여 준 사랑 때문에 어린이들은 교회에 있는 것을 좋아했고 성인이 된 지금도 교회 활동을 즐기고 있으며, 결혼해 가정을 꾸린 사람도 있다. 교회 회원들의 태도가 우리 형제 자매들의 생활에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진단해 보고 새롭게 해야 한다. 특히 그들에 대해 진정한 사랑을 갖고 있지 못할 때에는

더 그래야 한다. 각 사람이 지닌 모든 면, 즉 그들의 취향, 관심사, 목표, 기쁨, 어려움, 감정, 소망 등등 더 많은 것을 주목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이 사람에 대해 갖고 있는 고정 관념보다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에,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런 거룩한 신분에 걸맞게

대해야 한다.

### 경험과 공부를 통해 자신을 교육함.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자연스러운 마음이다. 익숙한 영역에서 벗어나 색다른 면모를 지닌 사람들을 알게 되면 우리의 고정 관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자신의 고정 관념에 맞아 보이는 것들만 받아들이고 그에 맞지 않아 보이는 것들을 무시하거나 대충 둘러대며 우리 고정 관념을 더 공고히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미지의 것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도 정신 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정신 질환에 대해 더 잘 알면 그런 두려움과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신분열증, 양극성 장애, 주요 우울 장애, 불안 장애, 인격 장애 등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정신 질환을 가진 어떤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경우, 그런 질환에 대해 공부하고 그 사람에 대해 배워서 그 현상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좋다. 많은 경우에 부자연스럽고 친근한 느낌을 주지 않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관심을 갖고 친구를 사귀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선다면 서로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신뢰할 만한 책과 웹사이트, 전문가들에게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현지의 교회 지도자들이 와드나 스테이크에 있는 정신 건강 전문가들을 초대하여 정신 질환과,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노변의 모임이나 워크숍에서 다루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정신질환에 대한 고정 관념을 극복하고 그러한 질환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일본 후기 성도 가족 서비스는 정신 질환과, 우리가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노변의 모임과 워크숍을 제공하기 위해 정신 건강, 발달 장애, 노인 요양 분야의 후기 성도 전문가들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이런 전문가들은 후기 성도 가족 서비스의 주도 아래 교회 지도자들에게 전문적 자문도 제공한다. 교회 지도자와 회원들이 정신질환과 관련된 고정 관념을 극복하고, 그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교회와 공동체에 있는 유용한 자원들을 현명하게 활용하도록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바쳐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 여러분이 전문적 소양을 갖고 있고 후기 성도 가족 서비스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경우, 설령 단 몇 시간밖에 낼 수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감독을 찾아가 자원봉사자 내지 교회 봉사 선교사로 일하고 싶다고 말하면 된다. 후기 성도 가족 서비스 조직이 없는 곳에서는 와드와 스테이크 차원에서 비슷한 노력을 펼칠 수 있다. 주님의 창고에서는 사람들의 재능과 시간을 복지 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이 잘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 모두가 기여할 수 있다

실질 성장을 촉진하고 구원 사업을 서두르기 위해 함께 일하면서, 서로의 가정과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무는 곳, 우리가 바라는 그런 곳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 각자가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리아호나*에서는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따뜻한 사랑을 퍼트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을 더 다룰 예정이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고정 관념을 진단해 보고 그것을 극복하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의 고정 관념을 넘어 우리 형제 자매들을 진정으로 알고 노력하면서 그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 감정과 행동에 주목할 때 정신 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편안하게 어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늘 사려 깊게 판단하고 사랑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정신 질환은 필멸의 현실 세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든 아니면 우리 이웃이든에 관계없이 그들에 대해 알아가고 또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할 일이다. 따뜻한 사랑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한다면 우리 가정과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떤 느낌을 줄 것인가? 아마 그런 사회를 이미 마음속에 그리고 있을 것이다. 많은 수고와 인내를 감수해야 하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복음이 가져다주는 모든 기쁨 중에서도 우리는 “모든 교회 회원들의 성품을 키우고 그들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최선의 것을 끌어내며 영적으로 풍성한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이 교회의 사명이자 목적이며 존재 이유”이다.<sup>3</sup> ■

### 주

- 1 Alexander B. Morrison, *Myths about Mental Illness*, Ensign, October, 2005
- 2 제프리 알 홀런드, “깨진 그릇과 같은”,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 3 제이 르우벤 클라크, 스테이크 회장들과의 특별 모임에서, 1936년 10월 2일, *교회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 2010에서 재인용

## “교회는 병원과도 같습니다”

**회**원이 한 25명 정도 되는 어느 조그만 지부에 정신 질환이나 다른 복지 필요 사항이 있는 형제 자매가 여럿 있었는데,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일꾼이 거의 없어서” 지부 평의회를 구성해서 이런 형제 자매를 돕는 것도 불가능했다. 몇 해 전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께서 주신 구조하라는 권유에 따라 영감에 찬 지부 회장은 이런 형제 자매들을 구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선 교회 회원들로 평의회를 구성했다. 각자의 공식 부름에 관계없이 많은 회원들이 동참했다. 이 평의회는 지부의 복지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지부 회장은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는 개인의 필요 사항과 그에 대한 해결책에 집중하면서 평의회를 갖습니다. 평의회를 갖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실제로 이 일에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회원 중에는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다. 새로운 회원이 교회에 올 교통편이 없을 때에는 평의회 일원이 자원해서 매주 교통편을 주선한다. 지부에서는 모임 후에 정기적으로 점심 식사를 하면서 회원들이 편하게 교류하고 서로 얘기하면서 관계를 돈독하게 쌓을 수 있다. 평의회는 사회 복지사이며 정신 건강 전문가로 일하는 한 평의회 회원의 전문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그들은 각 회원의 정신 질환에 대해 또 그 사람과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우면서 한팀이 되어 이런 형제 자매들을 돕는다.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노력에 동참하고 있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회원도 있고 개종하는 사람도 있다.

전문가로 일하는 이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구주께서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40)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정신 질환이 있는 형제 자매들은 이런 가르침을 행할 기회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들이 우리 곁에 있기에 우린 성장할 수 있고, 그들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배울 기회를 줍니다. 우리는 구조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 질환이 있는 형제 자매나 다른 사연이 있는 형제 자매를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녀는 교회 회원들이 시간을 내서 정신 질환에 대해 또 각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 그들을 도울 방법을 알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녀는 이런 부분도 강조한다. “우리는 사람을 정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이 지부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신이 커지고 있고 방문자들도 그걸 확연히 느낀다. 이 지부를 처음 방문했던 한 회원은 지부에 머무는 동안 따뜻한 분위기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회원은 이렇게 덧붙였다. “이런 것이 제가 원했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지부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소외감이나 차별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정말 가족 같았습니다! 정신 질환이나 그 어떤 것도 그 지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 지부 회원들은 정말 모든 사람을 포용했습니다.” ■



## 정신 질환에 대한 미신과 오해

알렉산더 비 모리스 장로

철십인

정신 질환을 잘 이해한다면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사랑과 연민을 보일 수 있습니다.

**물** 문경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 니파이인들이 “행복하게 살았[다]”(니파이후서 5:27)는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순종할 때 행복해진다는 생각은 얼마나 놀랍고 통찰력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점은 그 행복이 역경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신앙과 인내력을 시험하는 유혹, 반대, 시련을 경험합니다. “이는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음이 꼭 필요[하기]”(니파이후서 2:11) 때문입니다.

개인이나 가족이 직면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련 중에는 정신 질환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정신 질환은 보통으로 삶에 지쳐서 일시적으로 겪는 사회적 및 정서적 근심이 아닙니다. 그보다, 사고와 행동에 있어서 경증증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을 뜻합니다. 그러한 장애가 매우 심각하고 오래 지속된다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들에 대처하는 능력이 크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질환은 심한 우울증의 경우처럼 생명 자체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질환에 걸리면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몸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 의학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여 뇌의 신비를 얼마간 밝혀 내긴 했지만, 이 복잡한 영역에

대한 지식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왜, 그리고 어떻게 뇌의 일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지도 여전히 정확하게 밝혀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어떤 개인이나 가족 또는 단체도 정신 질환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췌장에서 화학적 장애가 일어나 당뇨병이 생기는 것처럼 뇌에서 일어난 화학적 장애로 많은 정신 질환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신 질환과 관련하여 왜 여전히 그러한 오해와 두려움이 있을까요?

### 미신과 오해

유감스럽게도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와 마찬가지로 후기 성도들 사이에서도 정신 질환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과 오해가 나타납니다. 이런 해로운 태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1. 모든 정신 질환은 죄 때문에 생긴다.

이 점에 대해 잘못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고의로 어기는 것을 말하는 죄는 실제로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범법에 대해서는 결과, 즉 형벌이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오는 자비의 능력을 간구하지 않는 한,

당사자에게는 공의의 요구가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괴롭히는 죄의 위력은 앨마가 회개한 후 했던 다음 말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영원한 괴로움으로 고통을 당하였나니, 이는 내 영혼이 극심히 괴로움을 당하고 내 모든 죄로 고통을 당하였음이라. …… 내가 지옥의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였느니라. …… 내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간다는 생각만으로도 내 영혼은 표현할 수 없는 공포로 괴로움을 당하였느니라. 오 …… 내가 추방되어, 영혼과 육신이 모두 없어질 수 있다면 하고 내가 생각하였느니라.”(앨마서 36:12~15)

앨마처럼, 회개하는 과정에서 비통해하는 사람들은 정신 질환자가 아닙니다.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면 감독님에게 고백하고 조언을 얻어야 합니다. 각 감독은 부름의 일환으로 분별과 지혜라는 특별한 능력을 받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정신 건강 전문가라고 해도, 교회 회원이 죄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과 후회와 우울증을 이겨 내도록 성신의 인도를 받아 도움을 주는 충실한 감독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정도를 벗어난 생각과 행동과 감정은 죄가 아닌 정신 질환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반드시 강조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범법이 아닌 질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추측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입니다.

사실, 계명대로 생활하고 자신의 성약을 지키는 많은 충실한 후기 성도들이 정신 질환과 싸우고 있거나, 또는 도덕적으로 의롭지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가족 구성원들이 겪는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들이 짊어진 많은 짐은 사랑과 이해와 수용으로만 덜어줄 수 있습니다.

## 2. 정신 질환에 대해 누군가가 비난을 받아야 한다.

인간은 인생에서 뭔가가 잘못되면 다른 사람 또는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경향을 흔히 보입니다. 많은 정신 질환 희생자는 그런 고통을 야기한 자신이나 부모님, 또는 다른 누군가의 행위를 기억해 내려고 헛된 시도를 하다가 정서적으로 소진되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확실히 그런 경우도 있었으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좋지 않은 일에 대해 악마 탓으로 돌리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대체로 정신 질환에는 악령을 쫓는 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숙련된 의료인의 치료와 모든 사람의 사랑과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희생자들은 자주 자신을 탓합니다. 많은 이들이 어떤 면에서인가 자신이 그러한 고통을 야기했다는 막연한 느낌으로 공포심을 떨쳐 버리지 못하는 듯한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부모, 배우자, 그 밖의 가족들 또한 종종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짚어 보고자 헛되이 힘쓰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들은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주목할 만한 증거도 없는데 거듭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그 어느 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간단한 이유는 그 희생자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포함하여 타인의 행동에서 초래된 것이 아니라, 질병의 작용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신 질환에 대해 탓을 하는 것은 모든 당사자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안겨 주며,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는데 선용될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시간에 관련 질병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고 올바른 진단을 하며, 원인을 이해하고,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고, 치료 과정의 일환인 행동 및 인지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희생자와 가족 그리고 우리 모두가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거부와 분노와 거절은 사라지고 인내와 용서와 이해심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 3. 정신 질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신권 축복이다.

저는 신권 축복을 매우 옹호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신권 축복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유익하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또한 정신 질환 또는 여타 질병에 대한 최종적이자 완전한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 온다는 것도 압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께로 향할 때 우리의 삶은 향상되며 더욱 풍성해지고 평화로울 것입니다. 그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태복음 11:28~30) 그분만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필요한 길르앗의 영향을 갖고 계십니다.

신권 축복의 독특한 역할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교회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이지 정신 건강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만성적인 정신 질환을 효과적으로 다룰 전문 기술이 없고 그런 훈련도 받지 않았으며, 다만 유능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기 소관의 회원들을 위해 그런 도움을 구하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정신 질환과 같은 괴로운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지식과 기술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암이나 심장병, 당뇨병 같은 의료 문제에 대해 의사의 진찰을 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 질환을 다룰 때에도 의료인과 기타 적절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도움을 구할 때 가능한 한, 해당 건강 전문가가 복음 원리에 부합하는 시술과 절차를 따르는지를 주의 깊게 확인하십시오.

## 4. 정신 질환자는 단지 의지력이 부족할 뿐이다.

정신 질환자는 “기운을 내고, 약간의 기계를 보이고, 잘 살아나가기”만 하면 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식과 연민이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종종 정신 질환자가 의지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그들이 처한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도움과 격려와 이해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 가정의 밤을 위한 도움말

대부분의 *리아호나* 기사는 가정의 밤 토론이나, 개인적인 숙고, 복음을 가르치는 여러 상황에 사용될 수 있다.

1. 가족들에게 모리스 장로가 언급한 미신에 대한 참/거짓 퀴즈를 낸다. 각 미신을 읽고 모리스 장로의 설명을 사용하여 왜 그것이 거짓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2. 가족 구성원들에게 자신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데 사용할 사다리나 도구 하나 없는 깊은 어둡고 좁은 구덩이 속에 갇혀 있다고 상상해 보게 한다. 그들이 구조를 하러 온 사람에게 요청할 가장 중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그 구덩이를 정신 질환에 비유하고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 질환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구조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도구들을 그 기사에서 하나씩 찾아보라고 한다.

격심한 공황 발작으로 생기는 거의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목격한 사람은 약간의 의지력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고통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아주 잘 압니다. 침대 밖으로 나올 수도 없거나, 하루 종일 울부짖거나, 절망적인 의욕 상실에 빠지거나, 자살을 시도할 만큼 심각한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느끼는, 거의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정신 질환이 의지력의 문제일 뿐이라는 생각을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심장병이나 암에 걸린 사람에게 “성숙해지고 그것을 극복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신 질환자를 무자비하고 도움도 안 되는 그런 방식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 5. 모든 정신 질환자는 위험하므로 감금해야 한다.

선동적이고 불완전한 언론 보도는 정신 질환자를 그들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위험한 존재, 즉 광포한 미치광이로 정형화하여 묘사합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대다수 정신 질환자는 광포하지 않으며, 대다수 폭력 범죄들은 정신 질환자들이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sup>1</sup>

더구나 지난 40년간 정신 질환에 효과적인 약물 치료법이 상용화되고 효과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됨에 따라, 신체 질환이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정신 질환자도 자신의 지역 사회에서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들을 감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는 대부분의 정신 질환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그들의 능력과 재능, 경험, 의욕에 기초하여 어떤 직업의 어떤 위치에서든 일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 6. 정신 질환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생기지 않는다.

미국 국립 정신 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에서 주목했듯이, 사실은 미국 어린이의 약 10퍼센트가 집, 학교, 또는 지역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는 데 지장을 주는 정신 건강 장애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sup>2</sup> 자살을 하는 어린이의 대다수는 우울증이 심하며, 대부분 부모들은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도록 그 우울증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정신 질환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 7. 원인이 무엇이든 정신 질환은 고칠 수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난 40년간 다국적 제약 업체에서는 무수한 약물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해아릴 수 없는 가치가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물론 그 제품들은 완전하지 않으며, 모든 경우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행히도 그런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갈 길이 너무 멉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현재처럼 약물의 효능에 한계를 드러내는 부작용 없이 생화학적 장애를 고치는 특효약을 사용하게 될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그러한 개발이 향후 10년간 정신 질환 치료에서 현저한 발전을 이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을 도움시다

제가 설명한 것들이 정신 질환을 둘러싼 몇몇 근거 없는 믿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과 이해가 있을 때 사랑과 수용과 이해심과 포용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고, 아무도 버려 두지 않으며,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이들을 북돋아주고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알렉산더 비 모리스 장로는 1987년부터 2000년까지 칠십인의 일원으로 봉사했다. 이 기사는 2005년 *엔사인* 10월호에서 발췌함.

### 주

1. Aaron Levin, "Violence and Mental Illness: Media Keep Myths Alive," *Psychiatric News*, May 4, 2001, 10 참조.
2. [www.nimh.nih.gov/healthinformation/childmenu.cfm](http://www.nimh.nih.gov/healthinformation/childmenu.cfm) 참조.

## 30년 만에 참된 복음으로 돌아오다

인천 스테이크 답동 와드 강낙희 형제

**나**는 어려서부터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진리에 목말랐고, 그러던 중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선교사를 만나 1974년, 중년의 나이에 침례를 받았다. 교회 회원이 된 지 5년쯤 되었을 때, 나는 당시 처음 번역된 새로운 교재를 읽게 되었다. 그곳에는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생소하고 깊은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당시의 나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고, 의문을 해결할 길이 없었다.

결국, 나는 교회를 떠나 긴 방황을 시작했다. 좋은 지도자가 이끌던 다른 기독교 종파로 옮겼지만, 참된 교리에 관해 생각할 때면 마음이 괴로웠다. 하나님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도 이를 충족할 수 없었다. 때때로 새벽에 잠에서 깨어 하나님께 기도로 울부짖기도 했다.



위 사진: 강낙희 형제는 업무 중 쉬는 시간마다 복음을 공부한다.

그러기를 30여 년, 이 교회가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신의 본질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았던가? 다시 돌아가면 예전에 가졌던 의문이 풀릴지도 모른다.’

다시 가 보라는 성신의 느낌이 있었지만, 오랫동안 등을 돌렸던 곳에 다시 발을 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다. 약 1년간을 기도하며 고민한 끝에, 2011년 마지막 안식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다시 찾았다. 당시 의문을 가졌던 그 교재의 번역에 오해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다시 읽자, 모든 의문이 풀리며 갖고 있던 지식들이 하나로 정리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 회복된 복음의 참됨을 다시 받아들이게 되었다.

교리를 오해하고 이 회복된 참된 교회로부터 떨어져 있던 그 오랜 시절이 한스럽기만 하다. 젊은 시절에 돌아왔더라면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라도 참된 교리에 속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또한, 신앙을 가진 내가 이 믿음에 헌신해야 할 책임을 느낀다. 나는 내가 그랬던 것처럼, 참된 교리를 찾으며 방황하고 있는 이를 찾아내고 반드시 그를 도울 것이다. ■

## 생소한 이야기에서 느낀 진심



맨 위 사진: 침례받을 당시 조은비 자매(왼쪽에서 두 번째) 바로 위: 최근 침례 받은 조은비 자매의 부모님(앞줄 맨 왼쪽, 가운데)

서울 남 선교부 조은비 자매 선교사

**대**학 입시를 거치며 버거운 마음이 들어 오랜 벗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대화는 인생과 종교에 관한 주제로 이어졌다. 친구는 그때,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다.

“우리 교회 좋아. 이 교회는 하나뿐인 참된 교회야.”

우린 평소에 교회라는 소재에 대해 한 번도 대화해 본 적이 없었지만 나는 그 친구를 진심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일단 믿음이 갔다. 권유에 따라 교회에 참석할 날짜를 정하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복음 토론도 시작했다.

그러나 복음을 배우며 이제껏 생각해 보지 못했던 영적인 것들을 접하면서, 어색하고 이상한 기분이 자꾸 들었다. 내게는 복음이 생소했던 것이다.

어느 날 선교사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하며, “자매님은 하나님의 소중한 딸”이라고 내게 말했다. 그 진심 어린 간증을 듣고 나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다. 나는 변화되기 시작했다. 성찬식 말씀 시간에 한 청녀가,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라고 간증하자, 나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각자를 알고 계시며, 우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여러 회원들의 간증이 덧붙여지며 하나하나 내게 스며들었다. 회원들의 간증과 모범을 보며 내 간증이 점점 자라났다.

나는 지금 서울 남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봉사하는 매일매일의 값진 시간을 통해, 이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고 있다. 이 소중한 복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하고 행복하다.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나도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

##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 자매 7명/장로 10명



**강성관 장로**  
대전 스테이크  
유성 와드  
서울 선교부



**김규리 자매**  
동 스테이크  
상계 와드  
부산 선교부



**이신진 장로**  
청주 스테이크  
천안 와드  
서울 선교부



**정영기 장로**  
순천 지방부  
순천 지부  
서울 선교부



**김태현 장로**  
대구 스테이크  
대명 와드  
서울 선교부



**김한솔 자매**  
부산 스테이크  
구포 지부  
서울 선교부



**정진섭 장로**  
울산 지방부  
포항 지부  
서울 선교부



**하성준 장로**  
인천 스테이크  
계산 와드  
부산 선교부



**신아현 자매**  
동대문 스테이크  
화양 와드  
부산 선교부



**이승미 자매**  
제주 지방부  
제주 지부  
서울 선교부



**하여정 자매**  
동대문 스테이크  
교문 와드  
대전 선교부



**하재익 장로**  
광주 스테이크  
농성 와드  
서울 남 선교부



**박태원 장로**  
창원 스테이크  
사천 지부  
서울 선교부



**서정범 장로**  
대전 스테이크  
선화 와드  
부산 선교부



**한규진 장로**  
광주 스테이크  
침단 와드  
일본 도쿄 선교부



**염경희 자매**  
동 스테이크  
길음 와드  
한국 서울 성전



**김연자 자매**  
동 스테이크  
의정부 와드  
한국 서울 성전

##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창원 스테이크  
통영 와드 감독: 서순갑(전임: 권영일)

## 기사 제보를 받습니다

지역 소식에서는 “구원 사업을 서두르는 성도들”이라는 기사를 준비하며, 회원 여러분의 제보와 간증을 받고 있습니다. 회원 선교 사업,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 저활동 회원 활동 촉진,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과 관련된 와드/지부, 가족, 회원 개인의 사연과 간증을 보내주세요.

메일: kah\_liahona@daum.net  
전화: 02)2232-1441 (내선: 564)